



22일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고을 물들인 오색 유리공예 ‘황홀’

■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 2개월 대장정 마무리

일반인·학생 등 3만2천여명 몰려 ‘복작’

작가 시연·동영상 ... 지역 미술계 새바람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 전시회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6월19일~8월22일) 특별전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으며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과 광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후원한 이번 전시는 오색찬란한 유리공예의 환상적인 자태를 선사했다.

특히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유리 공예를 감상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리 공예를 선보여 “전시 노하우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 전시 문화를 바꿔놓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립미술관은 22일 “이번 전시에 3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 중 성인관람객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전시 비수기라 할 수 있는 6~8월에 전시회가 열린 점 등을 감안할 때 큰 수확을 거둔 셈이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 최고의 유리 공예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 피노 시노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등 20여 점을 비롯해 ‘유리의 도시’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400여 년간 예술 혼을 이어온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이 광주를 물들였다.

국내에서 이처럼 이탈리아 유리 공예 작품이 대규모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람객들은 인간이 빛을 가장 아름다운 선과 곡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리 작품을 감상하며 미소지었고, 금세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정교한 형상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 유리공예 불모지인 광주에서 처음 열린 유리 전시라는 성과와 함께 일선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 학습 의장이 됐다.

베니스 무라노 섬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번 전시를 통해 이탈리아 유리 공예 명인의 빼어난 손놀림을 광주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 작가 카티아(Katia)씨가 전시

장에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특별 체험행사는 학생들에게 단연 인기였다. 장인이 유리 재료를 600도의 강한 불로 녹여 사탕·나비·꽃 등을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풍성한 동영상 자료도 관심을 모았다. 현지 작가들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고, 창작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긴 동영상상을 통해 유리 공예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였다.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채워 놓은 뒤 잔 표면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유리잔 연주’도 색다른 재미를 줬다.

박지택 관장은 “유리 공예가 광주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 매일 전시장에는 지역 작가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어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에 많은 영감을 얻어갔다”고 평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여름밤의 시원한 음악회

26일 오후 7시 전남도청 음악꽃 정원

(제)전남여성플라자(원장 이영세)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전남도청 음악꽃 정원(남악호수 뒤)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전남청소년교향악단이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비제의 ‘카

르멘’ 전주곡, 수자의 ‘행진곡’, 영화 음악 ‘캐리비언의 해적’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선보인다.

지휘는 김봉학(목포대 음대교수)씨가 맡았으며 소프라노 정애련, 소리꾼 백현미, 테너 최효진씨가 이 찬조출연한다.



지휘자 김봉학



소프라노 정애련

이날 하루 동안 여성플라자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공연 전에는 여성

플라자 공연장에서 영화 ‘거북이 달린다’와 ‘슈렉 3’가 상영되며 북아트와 별난장난감 전시회, 여성 생산자 물품 판매, 무료 페이스 페인팅, 천연비누와 헤어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 장경화 분관장

“지역미술관 역할은
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것
생활 밀착형 전시 중요”



“미술관이 권력화 되면서 소외됐던 대다수의 관람객들을 위해 지역미술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등 문화복지정책도 펴야합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공동주최하는 현대미술강좌와 ‘현대미술과 인문학’ 일곱 번째 강좌가 열린 지난 20일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논의됐다.

이들 유럽 작가들이 들어온 단 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수단이 ‘흰색’이었고, 뉴욕현대미술관의 전시장 벽을 흰색으로 칠하면서 ‘화이트큐브’라는 개념이 태동했다.

“유럽미술의 미국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뉴욕에서 ‘화이트큐브’가 등장했는데, 이는 예술과 삶의 통합에 대한 모더니즘 본래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 ‘외부 세계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화였다.

“이들 미술관은 다양한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는 있지만 마케팅을 통한 시각적인 광고 효과를 강조하고, 대기업이 관여해 스타 작가를 육성해 이를 상품화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 분관장은 화이트큐브와 포스트모던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미술관의 교육 기능 강화와 다양한 지역 밀착형 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미술관의 역할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고민을 대변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지역민의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 분관장은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시과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현대미술관의 방문객 중심 경영관리 연구’ 등의 논문을 냈다.

한편 현대인문학강좌와 여덟 번째 강의는 오는 9월10일 같은 장소에서 2010 상파울로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유코 하세가와씨가 강사로 나와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주변과 중심’을 주제로 진행한다. 문의 062-613-538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시 교육 공연 레저 등 다양한 문화 수용

누구나 즐기는 전시·문화복지정책 펼쳐야

이날 강좌에는 상록전시관 장경화 분관장이 강사로 나와 ‘화이트큐브의 탄생과 포스트모던미술관’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장 분관장은 현대미술관의 역사와 문제점, 개선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많은 미술가들이 뉴욕으로 건너갔고, 당시 미국의 대표 컬렉터였던 록펠러 가문이 이들의 작품을 컬렉션하면서 현대적인 의미를 담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시도였습니다.”

화이트큐브는 관람객의 삶과 정서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해 내지 못한 일부 특수계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93년 이후 등장한 파리 풍광두센터, 빌바오 구겐하임, 런던 테이트모던갤러리, 동경 모리미술관 등 포스트모던미술관은 전시, 교육, 공연, 레저 등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



지난 20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장경화 분관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93.7.15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아무것도 못 들립니다 ● 안 보겠습니다 ●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31-227-9940

0900-0000 광주 시내 11-1

동점점 0631-227-9970

순정점 0611-752-9940

북포점 0611-252-9900

익산점 0611-851-2422

movieholic

영화·공연·전시·행사

모든 것을 하나로

영화: 아바타: 물에 빠진 아이

개봉일: 8월 20일

관객등급: PG-13

배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감독: 마이클 펠트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문의: 1588-7941

영화: 아바타: 물에 빠진 아이

개봉일: 8월 20일

관객등급: PG-13

배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감독: 마이클 펠트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문의: 1544-0900

영화: 아바타: 물에 빠진 아이

개봉일: 8월 20일

관객등급: PG-13

배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감독: 마이클 펠트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문의: 1544-0900

영화: 아바타: 물에 빠진 아이

개봉일: 8월 20일

관객등급: PG-13

배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마이클 펠트, 조지 로우

감독: 마이클 펠트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문의: 1544-0900